

화려하다, 짜릿하다! 새로운 e스포츠 '드론축구'가 뜬다

“화려하다”, “박진감 넘친다”, “새롭다”, “신기하다.” 드론축구를 처음 접한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군사용으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드론이 이제는 e스포츠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국드론축구대회 현장에서 새만금항공의 드론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문우 씨를 만났다. 이 씨는 “골을 넣을 때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드론축구 선수가 더욱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마송은 객원기자(running@techm.kr) 사진 이영심

“드론축구 선수,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배터리 테이핑해”, “드론 날개 확인하고...”

전국드론축구대회 예선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새만금항공 팀이 패자 부활전에 임하는 모습은 남달랐다. 이 씨는 경기 전 드론 파손 여부, 배터리 점검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드론축구의 첫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은 팀원 모두 한마음”이라며 “연습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빈 시간에 자신

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드론과 연을 맺었다. 그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딴 전문 인력이기도 하다. 현재 이 씨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는 경찰관, 소방관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드론을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덕분에 현재 드론축구 선수로 활동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드론을 통해 항공 측량을 하는 일도 맡아보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드론축구 선수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드론축구는 누구나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나이, 전공, 학력 등의 제한이 없다. 이번 드론축구 대회에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새만금항공팀에서 드론선수로 활약 중인 이문우씨.



DRONE SOCCER 드론축구의 모든 것

Q 드론축구가 뭐지?

A 드론축구는 양팀 각 5명의 선수들이 드론 5기를 조종해 탄소 소재의 보호 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지상에서 3m 가량 떠 있는 원형 골대(지름 80cm)에 넣는 신개념 e스포츠다. 공을 밀어 골대에 넣는데 드론 공은 지상에서 하버링(hovering·공중의 한 자리에만 떠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드론축구 선수들은 축구처럼 공을 다룰 수 있다.

Q 한국이 중주국이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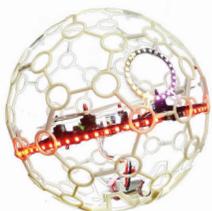
A 전주시가 드론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라는 종목을 만들었다. 현재 전주시는 드론 산업과 특화분야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드론축구를 개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드론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Q 드론축구만의 특징은?

A LED로 색 조명과 효과음, 센스로 무장한 드론플레이어들이 광학펜스 안에서 축구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드론 축구플레이어 및 축구공은 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정한 높이(1.5m 정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 내내 박진감 넘치는 드론축구 효과음이 나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Q 드론축구공이 일반 축구공과 다른 점은?

A 탄소소재로 만든 보호 장구(지름 36cm)를 드론 주위에 감쌌다. 드론 본체의 무게는 620g, 보호 장구의 무게는 200g이다.



드론심판이 되려면 심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드론을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준비했어요 덕분에 현재 드론축구 선수로 활동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드론을 통해 항공 측량도 하고 싶어요.”

연령의 선수가 참여한 이유다.

특히 최근 들어 장애인 드론 선수단도 창단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씨는 “드론축구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뇌에 땀이 나는 경기”라며 “직접적으로 신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선수단이 더 많이 생겨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이 씨가 속해 있는 새만금항공 팀은 패자 부활전에서 기회를 잡은 뒤 승승장구했다. 극적으로 승리해 8강까지



오르면서 새만금 항공 팀 내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현재 전주에서 살고 있는 이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드론축구를 연습한다. 최근 그는 원근감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드론축구 골대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원근감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앞으로 드론축구가 더 많은 곳에서 보급되

기 위해서는 축구장 건설 등 다양한 제반 시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현재 드론축구팀이 전국적으로 30~40개가량 창단됐지만, 드론축구장 등의 시설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드론축구를 처음 만든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드론축구장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❶

“드론 좋아하면 도전해볼 만”

드론축구 심판 이범수
캠틱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



이범수 캠틱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드론축구 심판으로 활동 중이다. 드론축구는 3인 심판(주심1명, 부주심 2명) 체제로 운영된다. 주심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맡는다. 부심은 양 팀에 한 명씩 배속돼 각종 패널티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팀의 점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번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주심으로 활약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드론축구라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직업군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드론축구 선수와 심판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드론축구의 대중화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드론축구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드론축구 선수로서의 시합 출전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후, 심판 연수 과정을 이수 받으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심

판 연수 과정에서는 드론축구 규정 취지, 상황별 룰 적용 요령, 규정에 관한 테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20여 명의 드론축구 심판이 배출됐다.

현재 드론축구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e스포츠로서의 가능성 뿐 아니라, 흥행몰이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도 드론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드론축구가 아직 시작 단계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드론축구와 관련한 새로운 직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